

전북대-제주대 '연합대학' 체제 구축한다

학생·전임교원 이상의 연구 인력 등 교환·양 대학 공동 활용 가능한 모든 물적 자원 교류키로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와 제주대학교(총장 허향진)가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대학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합대학 구축에 합의하고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호텔에서 양 대학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인적 물적 교류 등의 긴밀한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인적교류의 경우 학생과 전임교원 이상의 연구 인력, 그리고 행정인력 등을 광범위하게 교환하고 양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모든 물적 자원도 교류키로 했다.

우선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학습법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학생 역시 양 대학에서 모두 공부할 수 있도록 교환해 학점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양 대학의 연구교수 규정에 따라 연구 인력을 교류하고 행정인력 역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선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도서관이나 생활관, 공동실험실습관 학생실습장, 휴양 및 복지시설 등 양 대학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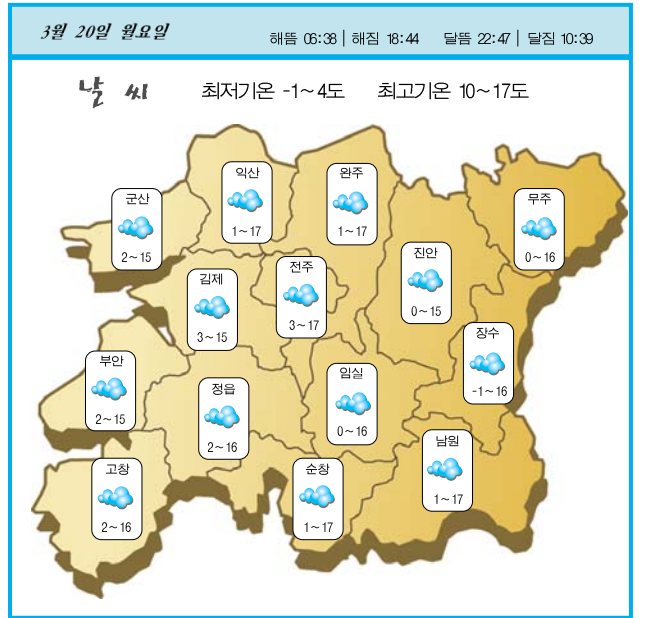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와 제주대학교(총장 허향진)가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대학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합대학 구축에 합의하고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호텔에서 양 대학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남호 총장은 "정부의 국립대 발전 방안에 따른 연합대학 구축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꼭 필요한 일이다"며 "제주대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 대학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타 대학과도

연합 체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찾아가는 한국의 꽃심 전주 설명회' 전주정신 전문강사 대상 워크숍 실시

전주시가 시민 생활 속에 전주정신인 '한국의 꽃심 전주'를 뿌리내리기 위해 전문 강사에 대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17일 '찾아가는 한국의 꽃심 전주 설명회'를 이끌어갈 전주정신 전문강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전주정신은 모두가 조화롭게 어울리며(대동) 삶의 여유와 멋을 잃지 않고(풍류), 사람의 도리와 의로움을 추구하며(울골음), 창의적 미래를 열어가는 것(창신, 創新)을 토대로 한 '한국의 꽃심'으로 지난해 6월 전주 시민의 날에 선포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주정신정립위

원장인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의 '한국의 꽃심 전주' 특강을 시작으로 학생·시민 등 여러 계층의 눈높이에서 전주정신을 설명할 수 있는 강의교수법 교육이 진행됐다.

또, 전주정신 전문강사들이 지난해 전주정신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시는 올해 전주정신 전문강사들을 활용해 각급학교와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총 200회 이상의 설명회를 진행,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주정신 '한국의 꽃심 전주'에 대해 인식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중점 관리키로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업사이클센터 건립 등 시민생활에 영향 있는 사업

전주시가 보훈공원 조성과 전주 업사이클센터 건립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의 추진과정과 담당자의 실명을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최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정 주요정책과 현안 등 25개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예산이 30억 이상 투입되는 대형 사업과 △5000만 원 이상 연구 용역 △그밖에 중점관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 시민 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들이다.

올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는 전주 업사이클센터 건립 등 30억 이상 예산 투입사업 10개 사업과 '향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4건, 이중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등 시민 관심이 높은 11개 주요현안사업이 포함됐다.

시는 선정된 정책·현안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정책실명제 창구'에 공개하고, 추진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등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업 관련자의 실명을 사업관리역사에 공개해 정책의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사업 60건 등 총 125건의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왔다.

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정책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선 6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정책실명제(주요현안 공시제)를 통해 시정의 주요 현안들의 추진과정 및 관련자들을 공개해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시민들을 존중하는 '사람의 도시' 품격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김민근 기자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제16대 전영배 지회장 취임

제16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에 전영배(80)씨가 취임했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는 17일 노인회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병지 전주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장과 시·군 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제14대·15대 지회장으로서 지난 8년간 33개동분회 조직 활성화와 586개 경로당의 행정적 지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관 간 상호 협력 등을 통해 노인복지 발전에 이바지 해온 오경남 전 회장이 이임했다.

전영배 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양받는 노년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과 경로당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의 조직 강화와 위상정립은 물론 한층 발전된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학생 금연 지원센터 운영사업 수행기관 공모

전북도교육청이 흡연 학생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학생금연지원센터 운영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또 도내 보건교사가 없거나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학교를 찾아가 흡연예방·금연교육을 할 기관도 공모한다.

우선 학생 금연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도내 초·중·고 흡연학생 중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희망학생 350여명을 대상으로 기본과정, 심화과정, 상시과정을 통해 금연을 돕게 되며 금연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에게 최소 3개월간 금연유지 사후관리까지 담당

하게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관(단체)은 도내에 학생금연지원센터 개소가 가능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금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서는 22일까지 도교육청 건강교육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사업기간은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다.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총 120교를 대상으로 체험형 흡연예방·금연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 이내에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금연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정해은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없는 학교** 행복한 교육.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정의 '보급'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